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ESMA,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감독 강화
2.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및 DeFi 동향: 비트코인·DeFi 성장 가속화
3. 인도 핀테크 지갑, 디지털 루피 지원 시작... CBDC 파일럿 본격 가동
4. 인도 암호화폐 보유자, 공개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70% 세금 벌금 부과
5. 대만 금융 위원회,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 제안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ESMA,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CASP) 감독 강화

- CASP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NCA에게 엄격한 감독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
- ESMA는 MiCA 준수를 위한 통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EU내 규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시사

ESMA는 MiCA 준수를 위한 감독 브리핑을 발표하여 NCA가 CASP의 인가, 운영 실체, 거버넌스, 아웃소싱, 리스크 평가 및 내부 통제 기능 등을 면밀히 감독하도록 하며, EU 내 실질적 운영과 규제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요구

▶ ESMA는 NCA 신청자 및 일반 대중이 MiCA와 RTS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위한 감독 브리핑을 발표

- ESMA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승인에 대한 EU의 통합적인 감독 방식을 달성하고 시장 참여자와 대중에게 방향 제시를 위해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NCA)의 지원에 대한 감독 브리핑을 발표
- **(목표)** 감독 브리핑은 MiCA의 요건을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rypto Asset Service Provider, CASP)의 인가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유럽연합 전체에서 인가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NCA를 지원
- 또한, 서비스 운영 실체 및 거버넌스, 아웃소싱에 대해 NCA가 CASP 실체를 평가하는 방법과 CASP 아웃소싱 계약이 MiCA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 NCA가 승인에 대한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에서 고려해야하는 핵심 원칙과 다양한 위험 요소를 설명

- NCA가 승인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설명하며 이러한 위험 요소 중 여러 가지가 적용되는 CASP는 더욱 높은 수준의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함
- **(핵심 원칙/ 최소 기준)** ESMA는 CASP가 개인 투자자와 직접 거래하고 제한된 규제 준수 및 감독과 관련되어 있어, 일반적인 기업보다 더욱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보임
- 따라서, CASP에 대한 저위험 분류 기반의 평가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평균 이상의 위험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면밀히 조사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명시
- 예를 들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ML/TF)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지니고 있으며, CASP는 비즈니스 구조의 특징,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의 특징에 의해 여러 관할권의 고객을 온보딩할 수 있는 사용 기술로 인하여 ML/TF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거래를 처리 또는 촉진하거나 높은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리스크는 증폭되며, 이를 위해 EBA의 ML/TF 가이드라인은 CASP가 제시하는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NCA를 지원
- **(리스크의 주요 요소)** 더 높은 리스크를 초래하는 주요 요소로는 ▲규모 ▲그룹 구조의 복잡성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 ▲생태계에서의 역할 ▲암호화 자산 서비스의 조합 ▲발행자와 CASP 활동의 조합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주요 기능의 아웃소싱 ▲아웃소싱 수준 ▲아웃소싱 유형 ▲감독 이력이 있음

▶ **CASP 서비스 운영 실체 및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지역 자율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NCA는 이를 감독하고 EU 내 실질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의무 존재**

- **(핵심 원칙/최소 기준)** 지역 CASP는 EU 정책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하며, CASP 내 보고 라인은 EU 차원에서 이러한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함
- NCA는 등록된 법인에 충분한 국내 인력이 있어야 하며, 관할구역에 한 명 이상의 경영진이 있어야 함
- 그러나, 대상 소규모 회원국(인구 100만 명 미만의 회원국)의 경우, 집행 관리 이사회 멤버가 NCA와의 임시 대면 참여를 위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상주하는 것을 허용
- 또한, NCA는 회원국 내 임원 및 고위 관리자의 의사 결정 권한과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CASP에 있으며, NCA는 의사 결정권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져야 함
- EU 내에서보다 EU 외부에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평가할 때 NCA는 EU 외부에서 수행되는 기능의 수와 기능의 중요도를 모두 고려해야 함
- 그리고, EU 외부에서 운영되는 지원 기능(IT 지원, 인사 지원)이 EU 내에서 견고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NCA는 총 비용 중 EU 외부의 기능에 지출되는 비율을 또 다른 지표로 고려
- NCA는 거버넌스 및 실체가 감독 기능의 행사를 방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
 - 가정 관할권의 물질(관리 수준 및 운영 수준)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 CASP가 관련 그룹 법인 또는 경영진이 EU 규제 범위 밖에서 운영되는 상황
- **(지역 자율성 판단)** CASP가 충분한 지역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소를 고려
- 경영진은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CASP에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이중 검직은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함
- **(내부 제어 기능)** NCA는 규정 준수 및 위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영구적으로 CASP에 맡겨야 하며, 자체 규정 준수 위험을 모니터링할 책임 존재
- 위험 관리 또는 준법 관리와 내부 감사 기능을 결합하는 것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더욱 높은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거나 리스크 프로필이 낮은 CASP의 경우,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비즈니스 활동의 규모에 비해 불균형할 경우 결합할 수 있음
- NCA는 CASP의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가 ML/TF 위험을 적절히 식별, 평가 및 완화할 수 있도록 보장
-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에는 최소한 한 명의 경영진이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실행, 유지, 모니터링을 담당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상충되는 업무와 활동이 동일한 개인이나 팀/기능에 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분리를 확립해야 함

▶ **CASP 아웃소싱 평가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써 DORA와 제3자 위험 감독에 관한 원칙을 언급하며, 예비 CASP의 사업 계획 평가에 대해 핵심 원칙 및 최소 기준과 같은 지침 제공**

- **(핵심 원칙/최소 기준)** ICT 인프라 구축/관리의 아웃소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ICT 제3자 위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NCA는 DORA 요건을 참조해야 함
- EU 내에서 운영되는 기능보다 EU 외부에서 아웃소싱되는 기능이 더 많은 상황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평가할 때 NCA는 EU 외부에서 수행되는 기능의 수와 이러한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함
- 아웃소싱 활동에 지출되는 총 비용의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사례별 평가에 대한 편견 없이 EU 외부에서 운영되는 지원 기능(비관리자 수준의 IT 지원, 인사 지원)이 EU 내에서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제3국 기관에 아웃소싱 또는 위임을 하려면 EU NCA와 제3국 당국 간의 사전 협력 요구
- NCA는 EU 법인이 거버넌스 요건을 준수하고 아웃소싱 또는 위임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변경 요청 ▲배포 모니터링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기술 지식 보유 ▲아웃소싱된 활동 또는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전문성 보유
- MiCA 제 73조 제1항 (a)호와 관련하여, 아웃소싱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위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1) 아웃소싱되는 서비스/활동 및 CASP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
 - 2) 아웃소싱을 통해 관여하는 단체에 대해 CASP가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준
 - 3) 업무가 위탁되는 관할권 및 NCA가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MiCA 제73조 제1항 (d)호 관련)
 - 4) 아웃소싱 기업이 CASP에 제공되는 중요한 운영 기능에 대해 추가 아웃소싱을 수행하는지 여부 등

▶ **감독 브리핑 내에 CASP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절한 평가, 사업 계획, 알림에 대한 감독 기준 포함**

- **(적합성 및 적절한 평가)** 개별 및 집단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CASP의 복잡성과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중요도가 높은 CASP는 높은 수준의 특정 기술과 경험을 요구
- NCA는 특정 관할권에서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의 사전 감독 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토대로 모든 관련 이사회 구성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 계획)** 사업 계획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명확하게 정의된 중간 지점과 함께 3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이 포함되어 NCA가 실제와 비교하여 예상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
- **(알림)** NCA는 국가 등록부 또는 NCA 공식 웹사이트의 전용 섹션에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iCA 승인 법인 또는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

- ESMA와 NCA는 MiCA 규정을 준수하도록 CASP의 승인 및 운영을 면밀히 감독해야 하며, CASP의 자율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웃소싱, 자금세탁(ML/TF) 리스크 등을 평가하여 EU 내 실질적인 운영을 유지
- NCA는 CASP의 인가, 사업 계획, 거버넌스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ICT 아웃소싱과 제3자 리스크 관리에 DORA 원칙을 적용하여 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의무 존재

[출처]

- ESMA, "Supervisory Briefing Authorisation of CASPs under MiCA" 2025.01.3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및 DeFi 동향: 비트코인·DeFi 성장 가속화

- Cointelegraph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알트코인의 시장 성장과 RWA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EU는 MiCA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미국은 FIT21 법안 추진으로 암호화폐 친화적 환경으로 전환

2024년 비트코인은 현물 ETF 도입과 기술 발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관 투자를 촉진했고, 알트코인·RWA·DePIN·AI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EU는 MiCA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FIT21 법안으로 암호화폐 친화적 환경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시장의 지형이 재편되고 있음

▶ 2024년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로 꼽히며, 미국에서 거래되는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의 10년 전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 비트코인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주목

- 수년 동안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이드체인 출시, 비트코인 스테이킹의 비활성화 등의 기술로 발전이 부진하였으나 2024년 영지식 증명의 등장으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보임
- 2024년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이에 현물 비트코인 ETF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매입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였으며, 특히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는 2024년 동안 25만 BTC를 추가 매입하며 기업 보유량을 44만 BTC까지 늘려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 또한, 2025년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기관 투자자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이 확대되며 2025년 15만 달러 돌파 가능성 제기되었지만,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규제 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2022-2025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출처: Cointelegraph, "Navigating 2025's Crypto Landscape: DeFi Trends and Crypto Outlook" 2025.01.29.

▶ 알트코인(Altcoins), 2025년 반등이 기대되며 주요 원인으로는 ETH ETF의 승인 여부에 주목

- 2024년 상반기 동안 대부분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집중되며,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알트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다소 제한적인 시장 성장을 이룸

- 그러나, 2024년 일부 주요 알트코인의 반등이 시작되며 '알트코인 시즌(Altseason)'이 올 가능성 제기
- 이들 프로젝트는 NFT, 게임,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계를 확장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특히 솔라나(SOL), XRP, SUI, TON과 같은 주요 알트코인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 2025년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더리움(ETH)의 현물 ETF 승인 여부이며, SEC가 ETH ETF를 승인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며 알트코인 시장에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24-2025 알트코인 시즌 지수]



출처: Cointelegraph, "Navigating 2025's Crypto Landscape: DeFi Trends and Crypto Outlook" 2025.01.29.

▶ **RWA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2024년 190억 달러 규모에 도달, 2030년까지 1.3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

- 실물자산 토큰화(Real World Asset, RWA) 시장은 특히 부동산, 국채, 사모 대출 등에서 토큰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2024년 약 85%의 성장을 이뤄 총 시장 규모 190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전통 금융(TradFi)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된 결과로 평가
- 2024년 유럽투자은행(EIB)이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에는 글로벌 금융 기관과 대형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2030년까지 시장이 1.3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금융기관의 참여가 이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DePIN의 성장으로 2025년 AI 및 블록체인 융합이 가속화되고 주요 산업과의 통합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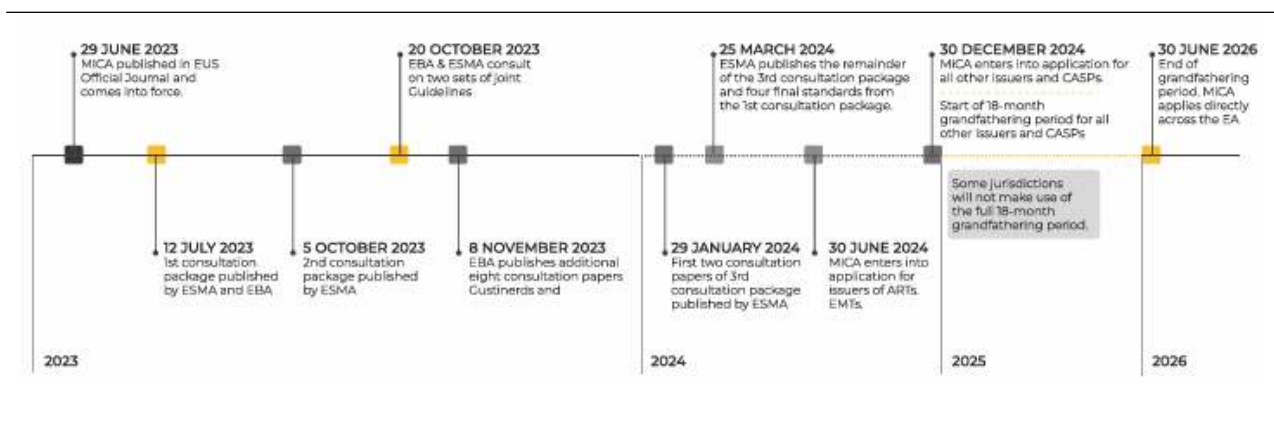
- 2024년 탈중앙화 인프라(DePIN) 및 AI 관련 프로젝트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DePIN 네트워크 기기 수는 1,300만 개를 돌파하였으며 AI 기반 프로젝트의 시장 가치가 222% 증가하며 155억에 도달
- 탈중앙화된 생물학 연구 프로젝트인 BIO 프로토콜과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인 OriginTrail이 현재 DeSci 분야의 시가 총액의 50%를 차지
- 특히, Helium Network, Redner Network 등의 프로젝트가 두각을 나타냈으며, AI와 결합한 DePIN 솔루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2025년에도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DePIN의 사용 사례가 더욱 명확해지면 2025년에는 신흥 기술이 주요 산업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며 AI x DePIN과 같은 문 간 혁신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
- 이때, AI 에이전트는 콘텐츠 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DePIN 네트워크는 RWA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지만, DeSci는 기존 학계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

▶ EU는 MiCA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미국은 FIT21 법안 추진을 통해 친암호화폐적 환경으로 전환

- EU에서는 MiCA 프레임워크의 시행으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정 준수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 익명성을 차단하고 기존 규정 준수 부서가 있는 바이퍼 비즈니스에 도움을 줌
- 소규모 벤처의 경우 MiCA 규제로 인해 상당한 오버헤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게리 겐슬러의 퇴임 이후 SEC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악화되고 있어 SEC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FIT21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될 것으로 전망
- 즉, FIT21 암호화폐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의 재량권이 축소될 것이며 이러한 법안은 암호화폐 감독을 CFTC와 SEC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MiCA 규제 실행 계획]



출처: Cointelegraph, "Navigating 2025's Crypto Landscape: DeFi Trends and Crypto Outlook" 2025.01.29.

- MiCA의 18개월 과도기를 거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미래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입법 지침을 발표한 국가로는 스위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홍콩, 브라질 등이 있음

- 2024년 비트코인 ETF 도입과 영지식 증명의 발전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BTC를 매입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여 10만 달러의 성장을 이뤘으며, 2025년 주요 기관과 국가 차원의 추가 매입 가능성을 제기
- 2024년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에서 일부 알트코인의 성장세가 반등하며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2025년 ETH ETF 승인 여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융합이 가속화되고 DePIN과 AI 기술 결합이 새로운 혁신 트렌드로 부상
- EU는 MiCA 프레임워크 시행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미국은 SEC의 권한 축소와 FIT21 법안 추진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

[출처]

- Cointelegraph, "Navigating 2025's Crypto Landscape: DeFi Trends and Crypto Outlook" 2025.01.2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인도 핀테크 지갑, 디지털 루피 지원 시작... CBDC 파일럿 본격 가동

- 핀테크 기업들이 UPI 결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디지털 루피 지원을 확대하며, 중앙은행은 파일럿 운영을 적극 추진
- 인도가 세계 최대 송금 수취국인 만큼,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디지털 루피를 국경 간 결제 혁신의 핵심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

인도의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UPI 결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디지털 루피(CBDC) 지원을 확대하며, 중앙은행은 오프라인 결제 및 프로그래밍 기능을 포함한 파일럿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CBDC의 사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도가 세계 최대 송금 수취국인 만큼,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이를 국경 간 결제 혁신의 핵심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

▶ 인도 핀테크 기업들이 UPI와 연계하여 디지털 루피(CBDC) 지원을 확대하며, 중앙은행은 이를 국경 간 결제의 핵심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

- Hindu Businessline에 따르면, 인도 핀테크 앱 CRED는 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디지털 루피에 대한 지원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MobiKwik은 Android 사용자를 위해 제작 중이라고 밝히며, Yes Bank는 두 핀테크의 스폰서 은행 역할을 하여 CBDC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두 지갑 모두 인도의 UPI 즉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CRED는 월간 활성 사용자가 1,300만 명이며 UPI에서 5위, MobiKwik은 최종 사용자가 1억 6,700만 명이라고 언급하며 18위를 차지
- 디지털 루피를 지원할 계획인 다른 앱으로는 월마트 지원 PhonePe, Google Pay, Amazon Pay가 있으며, PhonePe와 Google Pay는 작년 말에 각각 49%와 37%의 시장 점유율로 소비자 UPI 결제 부문을 차지
- UPI는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주로 핀테크에서 제공하며, CBDC에 대한 접근성을 핀테크로 확대함으로써 파일럿 CBDC 사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인도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며, UPI 즉시 지불결제의 우세를 인정하여 오프라인 기능과 프로그래밍 가능성에 있어 디지털 루피를 제공할 것으로 계획
- 이러한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인도는 대규모 해외 거주자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받는 나라인 만큼,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국경 간 지불의 킬러 앱이 될 것으로 예상

- (핀테크를 통한 CBDC 확산 가속화) 인도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루피(CBDC) 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기존 UPI 결제 시스템과 통합되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경 간 결제 혁신 가능성) 인도가 세계 최대 송금 수취국인 만큼, 디지털 루피가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글로벌 결제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출처]

- Ledger Insights, 'Fintech wallets go live in digital rupee CBDC pilot', 2025.01.2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인도]

인도 암호화폐 보유자, 공개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70% 세금 벌금 부과

- 인도 정부는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고율의 세금과 벌금을 도입하며,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임
- 인도의 세법 개정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무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림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최대 70%의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세법 강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 인도는 소득세법 제158B조에 따른 새로운 규정의 일환으로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최대 70%의 세금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 인도 재무부 장관인 니르말라 시타라만은 2025년 연방 예산을 발표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보고하는 소득세법 158B조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
-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수익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블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화폐, 보석, 금괴와 같은 기존 자산과 동일한 세무 취급을 받게 됨
- 새로운 개정안 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가상 디지털 자산(VDA)의 정의에 속하게 되어 기존 가상 디지털 자산 정의에 따라 법률 제2조(47A)에 정의되며, 법률 제285BAA조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보고 기관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해당 개정안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벌금은 관련 세무 평가 연도 이후 최대 48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제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
- 2024년 12월 말, 인도 재무부 장관인 판카즈 차우다리는 정부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납된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으로 824억 루피(9,700만 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힘
- 2024년 6월 미국 국세청(IRS)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 세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으며, 이 규정 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거래는 처음으로 제3자 세무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힘

- 인도는 소득세법 제158B조 개정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최대 70%의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며, 이를 기존 자산과 동일한 세무 취급을 받도록 조정하고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3자 세무 보고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등, 각국이 암호화폐 과세 및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출처]

- Cointelegraph, 'Indian crypto holders face 70% tax penalty on undisclosed gains', 2025.02.0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대만]

대만 금융위원회,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 제안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2025년 6월에 대만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법안 제안 계획
-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규제 준수를 위한 요건 마련 예정

대만 금융위원회(FSC)는 2025년 6월 법안 초안을 통해 국내 은행이 대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VASP 등록 규정을 시행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 계획

▶ 대만 금융위원회 (FSC)는 2025년 6월에 법안 초안을 제안하여 대만 내 은행이 새로운 대만 달러에 연동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현지 언론사 Money UDN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다루는 초안 법률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포함
- 대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펑 진룽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격차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펑은 모든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대만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함
- 현지 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가 아닌 새로운 대만 달러에 고정되며, 대만 중앙은행 총재인 창슈위안(Zhuang Xiuyuan)이 테더(Tether) 등 시중에 유통되는 인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비판
-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아닌 발행 회사에서 합법적인 미국 달러 자산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대만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먼저 FSC의 승인을 받아야 함
- Crypto News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대만 FSC는 은행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알려졌으며, 2025년 1분기에 신청을 시작할 예정
- 대만의 가상 자산 규정인 "VASP 등록 규정"은 2025년 1월 초에 발효되었으며, 이러한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보관소와 같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
- 새로운 규칙에 따라 VASP는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

- 대만 금융위원회(FSC)는 국내 은행이 대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
- 대만은 VASP 등록 규정을 시행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를 엄격히 규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FSC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

[출처]

- Crypto News, 'Taiwan FSC proposes law allowing banks to issue stablecoin', 2025.01.23.